현재 자기를 주인공하고 둘로 보지 마십시오

☞ 21면에서 계속

질문자2(남) 불법과 큰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도반들과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는 지금을 너무나 감사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마음 주인공을 처음 접하는 초발심 때는 믿고 맡기는 것이 상당히 쉬웠고 그 결과 일이 잘 돌아가므로 신바람도 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믿고 맡기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또 의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미생물에서부터 살아온 습으로 뭉쳐진 현재 '나' 때문이라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것도 내 탓이고, 공부가 잘 안되는 것도 내 탓이고, 모든 것이 내 탓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공부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내 습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을 거울삼아서 습이 나오는 대로 되놓고 있습니다마는, 나의 습은 심야와 같이 깊어 청정한 나를 발견하려면 얼마만큼까지 가야 되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큰스님께서는 수억겁 쌓인 죄업이라도 한 생각에 다 녹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업이 녹는 도리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지금 말씀하고 마이크를 놓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를 그렇게 들었다가 놓고, 제대로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질문자2(남) 저입니다.

큰스님 그렇죠? 그런데 자기인 거를 번연히 알면서 자기 탓이라고 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자기 탓이라고 합니까?

질문자2(남) 모든 가르침을 받자옵고 그 말씀에 따르고자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느덧 예전부터 쌓아온 습이 순간순간 나올 때는 '내 공부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어느 한 가지 경계를 넘고 나면 또 다른 습이 나오고, 몰랐던 습이 또 새로운 것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꺼내서 맡기고 되놓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하나하나 습이 없어져 가면서 내가 도반들과 더불어서 청정해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때면 기쁨도 맛봅니다. 큰스님께서는 테이프에 입력되어진 모든 습을 다 지우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힘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큰스님 힘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지워서 없애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생활하고 나한테 닥치는 것이 그대로 그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하세요. 또 그냥 생활이 그걸 끊어 버렸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나와야 내가 습득을 하고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목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이 나온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습이라고 생각지도 마세요. 나오는 대로 그대로 거기 놓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 거지 무슨 습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이걸 없앤다, 이걸 끊어야 되겠다 합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습인 것이지, 습이라고 생각 안 하면 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그 습이란 말을 아주 쉽게 자꾸 하는데요, 나는 그래요. 살아 있는 동물이라면 어떠한 거든지 보면, 들으면, 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나쁘고 좋고 그것만 아니까, 정히 나쁜 거는 하지 않고 좋은 것만 합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그냥 '아, 이 주인공 놈이 다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해결하고 그대로 넘어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하세요. 그 이름에 그냥 막혀 가지고는 쩔쩔매지 말고요. 좋은 생각이 나와도 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허허허. 아니, 좋은 생각을 해서 습이라고 안 그랬더라면 좋은 행이 그대로 나오고 좋은 경사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건 또 습이구나, 요거,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습이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그 뭡니까? 저 무학 대사가 꿈 해몽한 이치요. 이성계의 꿈 얘기 한 거 있죠? 만약에 무학 대사가 그 꿈을 그대로 나쁘게 해석을 했다면 나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좋게 해석을 하고 좋게 이끌어 주니까 그냥 지금 말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만약에 꽃이 활짝 피었다가 그냥 우수수 다 져 버리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면 '아이구,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어.' 하고 모두 탄식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이니 절대로 꿈이 이렇다고 해서 언짢아하지 말고 바꿔서 자꾸 써라. 구정물이 들어오면 바꿔서 새 물로 쓰고 이렇게 자꾸, 맛없는 걸로 들어오면 맛있는 걸로 바꿔 먹어라. 이게 자유자재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자재하질 못합니까? 돈이 들어서 자유자재 못 합니까, 누가 막아서 자유자재 못 합니까? 그렇게 하라는데도 그냥 어떤 양반들은 꿈을 꾸고선 "아이구, 꿈을 이렇게 꿨으니까 이거를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한 생각이면 바꿔 쓸 거를 글쎄…. 하여튼 지금 말하고 지금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 주인공 놈이니까, 하하, 그냥 주인공 놈이 과거도 살았고 현실도 살아나가니까 그저 과거 것이든 현실 것이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주인공, 네놈이 해결해!' 하고 다 거기다 맡기세요. 내가 있다고 세우지 말고요.

질문자3(남) 저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는 믿고 맡기고 이렇게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생활하는 과정에서 늘 어떤 대상 인물이라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아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성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둑이 무너질 걸 대비해서 밤새도록 안달을 하면서 둑을 쌓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저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상대방 경쟁사라든지 경쟁자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또 대비하고 사전에 사사건건 모든 것을 점검을 하면서 또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가족들 간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착이라는 것과 다소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더욱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큰스님 글쎄, 자식들 때문에 안달을 하든 또는 사업 때문에 안달을 하든 둑이 무너져서 안달을 하든 그걸 자기가 왜 걱정을 해요? 그렇게 안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주인공 놈이 하는 거라니까요. 어때요?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게 하라는 사람이 었었나요? 닥치면 닥치는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는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이 주인공을 믿고 하는 사람들은 열 번 뛸 거 한 서너 번밖에 안 뛰거든요. 그렇게 뛰면서, 하는 것을 그대로 주인공이 하는 거야. 왜 자기가 괜히 끼어들어서 나는 이렇게 뛰고 이러는데 주인공 따로 또 두고…, 그럼 자기 따로 있고 주인공 따로 있는 게 되잖아.

'자기가 하는 거 그대로 습이 돼서 이렇게 뛰는구나. 이거 주인공한테 다 놓지 않고 이렇게 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하고 있고 뛰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냥 주인공이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냥 애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또 사업을 위해서 뛰는 것도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주인공 놈이 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인공 놈이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주인공, 이렇게 지금 하고 가는 일,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잘 이끌어갈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되놓는 것은 자기더러 자기가 하는 소리예요. 현재 자기를 주인공하고 둘로 보질 말아요. 둘로 본다면 '나는 이렇게 뛰는데, 주인공한테 이렇게 맡기지 않고 나는 뛰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인공이 그렇게 뛰고 지금 가고 있잖아! 몸뚱이는 주인공 시자니까. 마음의 시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뚱이와 생명과 셋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라고 했으니까 합쳐서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해서 나는 착이 있고 이렇게 놓지를 못하고 뛴다고 생각질 말고 그대로 주인공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시인하고 넘어가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둘로 볼 것도 없고요.

질문자4(남) 큰스님의 무량광대하고 대자대비하신 법석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인연과 주인공 자리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조상님과 큰스님, 주인공 자리 그리고 제가 둘이 아님을 간절히 느낄 수 있는 새해맞이 촛불재가 있었습니다. 저희 광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그야말로 마음의 촛불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람되지만 예를 들어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가령 삼형제가 함께 이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촛불재를 모실 때 어떤 한 분만이, 예를 들어서 큰형만 모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촛불재도 백중이나 또는 개별적으로 재를 모시는 등 여러 번의 행사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뜻깊은 행사를 어떤 형제가 대표로 하는가, 아니면 한 번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큰스님의 법음을 받들고자 합니다.

큰스님 이 세상에 나올 때 제각기 다 혼자 나오죠? 갈 때도 혼자 가요. 대신 가 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밝히는 것도, 컴컴한 두뇌를 밝히는 것도 바로 제각기 각자 있는 거죠.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식구가 오지 못하고 하지 못할 때에 그 한마음으로서 대신하는 거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자 대표로 하면 되지.' 이러지는 마세요.

촛불재라는 것은 이 모든 유의 법이나 무의 법에서 내가 형성되고 살아나갈 때에 컴컴했던 일을 다시금, 내 깊은 마음으로 인해서 두뇌로 밝은 물리 지혜를 내기 위해서, 또 항상 뿌리가 깊은 밝음을 스스로서 밝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들고 켜고 하는 데에 방편이라고 하지마는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안 된다거나 이런 것도 업에 속하는 거니까, 그것도 본인이 촛불을 들고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거나 부모가 해 주거나 이래도 그건 훨씬 더 물리가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내가 해 놓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만이 한 것만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재라는 것이 아주 못났든 잘났든 또는 업보가 많든 업보가 적든 하여튼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원주에서 이런 예가 있었지요. 아들이 뭐, 둘이나 되나요? 단 하난데, 그냥 공부를 영 안 해서 남을 따라설 수가 없어요. 안 자고 공부를 하는데도 그렇대요. 그래서 해마다 이 촛불재를, 그때도 했는데 하여튼 그 어머니가 그 소릴 듣고 그냥 아들의 촛불을 저녁마다 자기가 켰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년 내지 몇 개월 안 가서 물리가 터져 가지고 그 반에서 일등을 하더랍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한 것만큼 내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뇌가 컴컴했던 것이 그렇게 밝아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끔들 촛불재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4년 2월 20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 글쎄, 자식들 때문에 안달을 하든 사업 때문에 안달을 하든
> 그걸 자기가 왜 걱정을 합니까.
> 그렇게 안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주인공 놈이 하는 것이라니까요.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